2026-11-16

COMMENT

중소형주

코스닥, 고무적인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

미래산업/미드스몰캡. 나승두 / nsdoo@sks.co.kr / 3773-8891

Signal: 기관 순매수로 반등 성공했지만 완전한 수요 회복이라 보기 어려워
Key: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코스닥 살리기 여전히 유효, 정책적 기대감 남아
Step: 투자자 유인할 수 있는 기초 지수 시급, 상장 기업 IR 부족 언급도 고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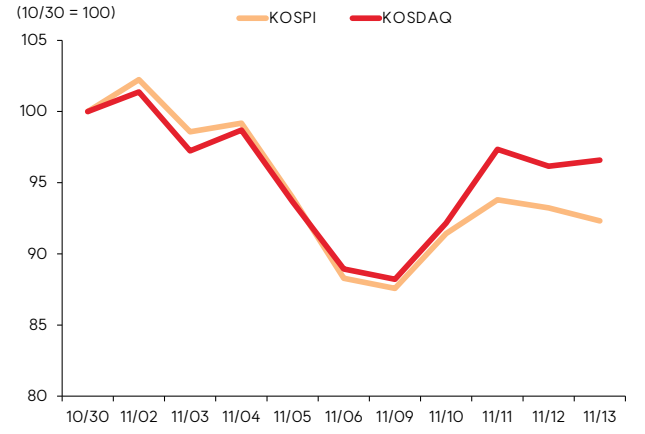
기관 순매수로 반등 성공한 코스닥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국내 증시 변동성은 익숙해질 수 없었다. 11 월 첫째 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블루웨이브가 사실상 확정된 이후 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확산되었고, 이는 코스닥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장중 629pt 를 기록하며 지난 7 월 연저점을 살짝 하회했다. 하지만 11 월 둘째 주에 접어들며 코스닥은 한 주간 9.5% 상승하며 곧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이 5.4%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이번 코스닥 시장 반등을 주도한 주체는 기관이었다. 일주일 동안 기관은 8,100 억원을 순매수했고, 매수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하기도 했다. 이미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대해 충분히 매도했고, 신용 청산도 이뤄진 상황에서 기관의 순매수는 증시를 끌어 올리기에 충분했다. 단, 코스닥에 대한 완전한 수요 회복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코스피가 NVIDIA 충격으로 주춤한 사이 코스닥은 단기간 리스크를 회피하는 분산처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3 일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코스닥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정책적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코스닥 정책적 모멘텀은 언제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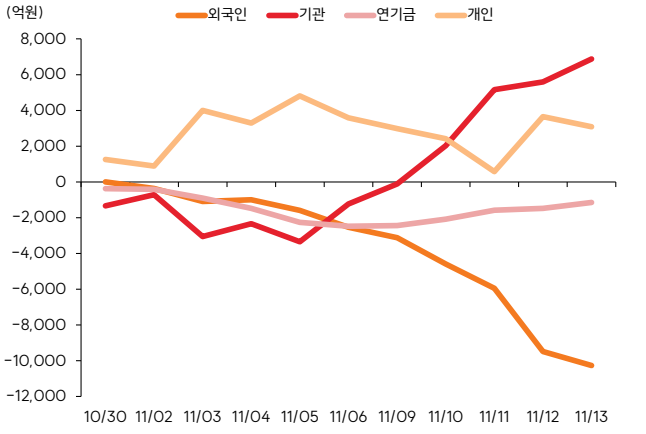
11/13(금),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대외 변수들로 인해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투자 자금의 유출입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강한 자본 시장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 시장 체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으로 주요 투자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론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정책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가늠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주요 연기금 투자자들이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벤치마크의 필요성, 코스닥 ETF 기초 지수 등은 항상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코스닥 셀렉트 지수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만큼 빠른 지수 구성을 통해 주요 연기금의 투자를 유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간접 투자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 공모주 배정 비중 확대 혜택이 제공되자 하이일드 펀드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ISA/연금저축/벤처펀드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기초 자산이 매력적인 ETF 에 투자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말이다. 상장 기업들의 IR 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이 언급된 점도 매우 긍정적이다. 여전히 투자자/애널리스트와의 미팅을 기피하는 기업들이 많다. 특히 오너 지분이 높은 중소형 기업일수록 그렇다. 기업 공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시점이다. 연 4 회 실적 발표 IR 만으로는 부족하다. IR 활동을 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IR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11 월 코스피 & 코스닥 지수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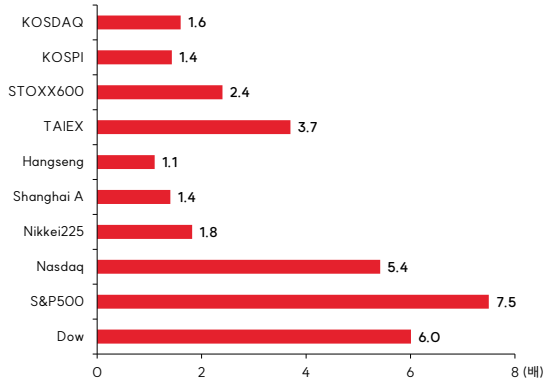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11 월 코스닥 주요 투자자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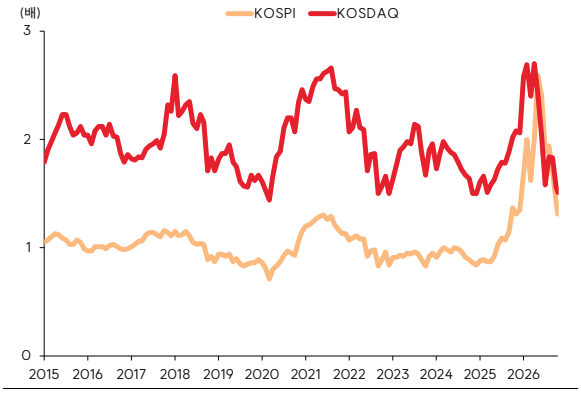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글로벌 주요국 증시 PBR



자료: Quantiwise, SK 증권 / 주: 10 월 30 일 기준

코스피 & 코스닥 PBR 추이



자료: Quantiwise, SK 증권

COMPLIANCE NOTICE

작성자(나승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 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